



유비쿼터스 시장 선점하라... 컨버전스 대세 '꿈의 기술' 총집합

아시아 통신 시장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부산 ITU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1일 폐막됐다. '미래를 주도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박람회는 전세계 27개국, 224개 기업이 상용화되거나 상용화 단계를 맞고 있는 첨단 유비쿼터스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미래의 IT세상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보여줬다. 특히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국가의 통신 서비스·단말기·시스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루면서 각종 포럼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의 장이었다. 또 아시아의 통신 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각종 포럼을 통해 정부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스템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9월 6일부터 11일까지 화려했던 6일간의 행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글 / 권경희 기자

정보통신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ITU 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11일 막을 내린 '부산 ITU(국제전기통신연합)텔레콤 아시아 2004'는 해외 바이어를 대거 동원, 기대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 ITU텔레콤 아시아 2004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포럼에는 총 10만여명(퍼블릭데이 학생·일반인 포함)이 참가했으며, 해외 바이어 등 전문 관람객은 3만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전문관람객의 80% 정도인 2만8,000여명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인들로 나타나 이번 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열린 국제전시회 중 외국인의 방문이 가장 많은 행사로 기록됐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바이어 및 해외 언론인 등의 체재비 등 직접경제효과는 당초 예상한 1,800억원을 약간 웃도는 2,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부산 IT 기업들의 수출상담 등 잠재적인 성과를 합칠 경우 이번 대회의 경제유발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부산발전

연구원이 종합적인 경제효과 산출작업을 진행 중인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대회기간 중 부산 해운대 일대는 호텔객실이 매진되는가 하면 고급 음식점과 주점에서도 손님이 늘어나는 등 ITU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이번 대회는 관람객 100만명을 동원한 지난해 부산국제모터쇼보다 경기상승 및 경제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우석봉 박사는 "외국 바이어를 끌어들이는 전문산업전시회는 일반 전시회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다"며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기 위해선 동남경제권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산업전시회를 더 많이 유치·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IT기술 새 주도세력 부상"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지난달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벅스코(BEXCO)에서 열린 'ITU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 개





막식에 참석, “아시아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시아의 힘으로 전세계 인이 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세계 100대 IT기업중 아시아 기업이 35개를 넘어섰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율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전자정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T 제조업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가장 빠르게 정보화에서 앞서가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2010년까지 초고속통신망을 광대역통신망으로 대체하고, 차세대이동통신과 홈네트워크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요시오 우쓰미 ITU 사무총장도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간 협력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요시오 우쓰미 사무총장은 한국어로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가) 발달된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한 뒤 “이번 행사의 주제인 ‘미래를 주도하는 아시아’는 비 아시아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나 지난 몇 십년간의 경제성장을 일군 아시아의 실상을 보면 증명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받은 아시아 인구나 아시아의 팀 정신, 강력한 근로윤리가 아시아가 세계 IT를 주도할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요시오 우쓰미 ITU 사무총장외에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후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국내기업 96개를 포함, 30여개국 230여개기업이 참가한 전시장을 둘러봤다. 첫 방문지인 삼성전자관에서 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300만화소 디지털카메라폰, TV출력 기능의 200만화소 캠코더폰, 위성DMB폰 등의 첨단 제품들을 둘러봤다. 노 대통령은 특히 DMB폰에 관심을 보였으며, KT관과 LG전자관을 둘러보고 백스코를 빠져나갔다.

KT관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제공임대서비스(ASP)인 ‘비즈메카’에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가입자 수와 도입시 세제지원 여부를 묻기도 했다. LG관에서는 WCDMA 단말기 신모델 ‘U8150’을 통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

다. 이 단말기는 유럽의 WCDMA 사업자인 허치슨에 수출한 것이다.

ITU행사 중 가장 바쁜 사람, 진대제 장관

부산 ITU 텔레콤 아시아 2004에 참가한 인사 중 가장 바쁜 사람은 단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번 행사기간 중 가장 주목받고 인기가 있었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대 하루 14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20여개국 장관·차관을 직접 만나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격을 했다.

실제 KT·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주요 기업은 총 900여건 이상의 수출상담 및 계약, MOU 체결 등의 결실을 거뒀다.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관에는 부산지역 IT기업을 포함해 55개 중소기업이 참가, 600여건에 300만달러 이상의 수출상담을 일궈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ITU행사가 개최된 부산에서 사흘간 머무르면서 20여명의 각국 장관·차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9일에는 서울로 자리를 옮겨 영국 산업부 장관과 장관회담을 가졌다. 진 장관은 베트남의 도 쯡 따(Do Trung Ta) 장관을 만나 한국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계약에 기반한 협력형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작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과 부탄 장관들과 회담을 가지면서 진 장관은 기술관료로서 해박한 IT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지상파DMB가 저렴한 비용으로 산악지역이 많은 국가에서 방송 난시청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즉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파키스탄의 아와이즈 아흐메드 칸 레가리(Awais Ahmad Khan Leghari) 장관은 자국어인 우르드어로 제작된 콘텐츠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파키스탄 장관은 한국이 IT분야에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와 같이 훌륭한 정책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기관을 자국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스라엘 우리 올레닉(Uri Olenik) 차관과의 면담시 진 장관은 한국이 추진중인 IT839 전략에 보다 많은 비중을 할애했으며, 이스라



엘 측은 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앞으로 로봇·음성인식·RFID·BT 및 NT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올레닉 장관은 10월로 예정된 이스라엘 IT 전시회에 진 장관을 초대했다.

진 장관은 알제리 및 아프가니스탄과 장관회담 직후 양국 간 협력 약정을 체결, 우리나라와 IT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강화돼 우리 기업의 알제리 및 아프가니스탄 진출에 큰 힘을 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시암술 무아리프(Syamsul Mu'arif)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Batam 전자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 우리나라에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쿠웨이트의 석 아흐메드 압둘라(Sheikh Ahmed Abdulah) 장관은 현재 자국에서 추진중인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의 협력의사를 밝혔다. 진 장관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전선원 관계자를 쿠웨이트에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진 장관은 장관회담중 초고속인터넷·DMB·전자정부 등과 관련, 코스타리카·쿠웨이트·몰디브 등의 장관들이 우리기업체나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희망하자 즉석에서 면담을 주선하는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통부는 이번 장관회담을 계기로 국가별로 고위급 협력위원회는 물론 실무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단말기-메가픽셀급 카메라폰 기술력 경쟁

'부산 ITU텔레콤아시아 2004'에서 최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글로벌 업체들이 벌였던 첨단 이동 단말기의 경연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LG전자·팬택계열 등 한국 업체들과 NEC·파나소닉·산요 등은 메가픽셀급 카메라폰을 비롯해 3세대(3G) 이동 단말기 등 첨단기술력을 선보이며 향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우선 3G 이동통신 단말기를 둘러싼 한·일 업체간 경쟁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허치슨사와 300만대의 3G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 오렌지사와도 100만대 가량의 공급계약

체결을 발표하는 등 세계시장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LG전자가 오렌지사에 공급하는 3G 단말기(LG-U8150)는 GSM/GPRS 서비스와 연동 가능한 것으로 국내업체가 생산하기는 처음이다.

3G 단말기 분야 후발업체인 삼성전자도 올 초 보다폰과 3G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부터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연말께 오렌지사와도 3G단말기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는 등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세계 3G단말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NEC가 포진하고 있는 일본도 이번 전시회에서 NTT도코모의 3G 이동통신 서비스인 '포마'(FOMA) 전용단말기를 대거 선보이며 유럽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여한 일본 단말기업체는 NEC를 비롯해, 파나소닉·소니에릭슨·산요·후지쯔·다이아몬드미즈비시 등 6군데 이상으로 한국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업체에 따르면 세계 3G 휴대전화 시장은 올해부터 글로벌 3G 서비스업체인 허치슨, 오렌지, 보다폰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돼 연평균 57%로 급성장, 올해 1,400만대, 2008년 2억대, 2010년에는 전체 휴대폰 시장 중 3G 제품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연말부터 본격화될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 서비스를 앞두고 모바일 환경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단말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TV폰을 대체할 DMB폰 1종을 연말께 출시하고 기선제압에 나설 예정이며, 팬택계열과 LG전자도 오는 11월께 DMB폰을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카메라폰 등 첨단 컨버전스 단말기도 급속한 '기술 진화'의 단면을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선보인 하드디스크(HDD)가 내장된 100만 화소급 카메라폰(SPH-V5400)과 300만화소급 디카폰(SPH-S2300)은 세계 최초란 점에서 국산 휴대전화 기술력을 과시했다는 평이다.

LG전자도 동영상 통화가 가능한 WCDMA폰(U8110, 8120)을 비롯해 오는 11월께 상용화 예정인 위성DMB폰(SB100)을 선보였으며, 팬택은 UFO를 연상시키는 원형 모양의 3D 게임폰(PH-



S3500)과 TV폰을 전시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통신장비-한국 중소벤처·중국업체 활약 돋보여

이번 '부산ITU 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에는 새로운 통신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제시 해온 다국적 네트워크 업체들이 상당수 불참,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아시아 IT전시회에 대규모 인원과 대형 전시부스를 마련해 활발한 상담을 벌인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활약과 국내 중소 벤처업체들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P 컨버전스 부문에서 선도적인 기술제품들을 선보인 점 등은 큰 수확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화웨이를 비롯해 ZTE(중흥), 알카텔사하이벨 등 중국내 통신장비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형 독립부스와 대규모 인원을 파견,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다국적 네트워크 업체들 중에는 루스트테크놀로지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시부스에 불참했고, 일본 통신장비업체들도 대부분 국내 지사를 통해 소규모 부스를 운영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부문이다.

이들 중국 장비업체는 초고속인터넷(xDSL모뎀) 장비·영상통신 솔루션·3G 모바일 솔루션 등을 대거 선보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 일본 시장 진출전략을 밝혔다.

이들 중 화웨이는 광통신, 차세대네트워크(NGN)용 영상통신솔루션 부문에서 국내 시장진출 전망이 높다고 의지를 표명했고, ZTE도 3G 모바일 및 광통신부문에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권 시장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업체들이 그동안 해외 통신업체들에 의존해 온 3G 모바일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확보, 동남아시아나 다른 국가에 이미 수출시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음은 국내외 IT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 중국 통신장비업체는 가격 경쟁력과 함께 높아진 기술력도 함께 과시함으로써, 외국 바이어들의 상담이 줄을 잇는 등 이번 전



시회 기간 내내 최대 인기 부스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존의 유무선 전화시장을 IP 텔레포니로 대체하는 IP 컨버전스 응용상품들이 대거 전시돼, 네트워크 시장에 IP 컨버전스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한국관에 공동 전시관을 구성한 국내 IT 벤처들이 영상전화기(씨엔에스테크놀로지), 차세대 소프트스위치(제너시스템즈) 등이 차세대 BcN(광대역통합망) 솔루션 등을 대거 선보여 해외 IT 전문가들과 바이어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스코시스템즈·노텔네트웍스 등 다국적 장비업체들도 별도로 기자간담회나 포럼 강연을 통해 BcN 기반의 차세대 IP 네트워크 및 광통신 솔루션 신기술 등을 제시, 전세계 통신시장이 IP 컨버전스로 이미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첨단 컨버전스·모바일서비스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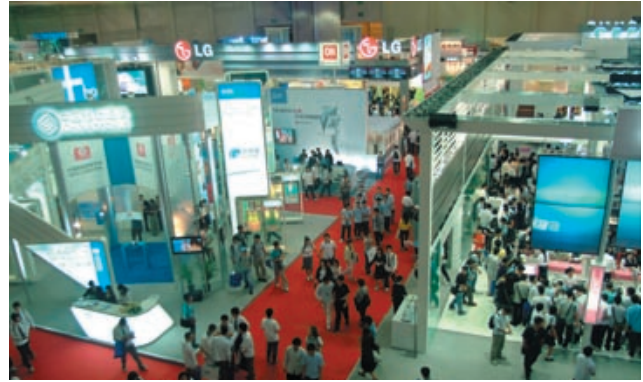
이번 '부산ITU텔레콤 아시아 2004'에서는 한·일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이 통신과 방송, 통신과 금융이 결합된 첨단 컨버전스 서비스를 나란히 소개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 통신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경쟁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KTF는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위성 및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텔레매틱스·홈네트워킹·m파이낸스 등 컨버전스 서비스를 시연,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과 중국의 정부 관료를 비롯해, 일본 NTT도코모와 KDDI, 중국의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등의 임원들이 SK텔레콤과 KT관을 방문, 한·일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드러난 한·일 이동통신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 줬다면 일본은 카메라폰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GPS(위성위치측정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앞선 것으로 요약된다.

멀티미디어분야에서 KT와 KTF는 국내에서 개최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 첨단 설비를 대거 동원, 실제 자동차를 전시장에 마련해 차



안에서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케이웨이즈(K-ways)'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또 SK텔레콤은 위성DMB·홈네트워킹·텔레매틱스 등과 함께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으로 주목받았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와 관련 SK텔레콤과 KTF는 휴대폰으로 계좌이체·송금 등을 구현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구현한 반면, 일본 NTT도코모는 교통카드 기능에 머물러 우리나라가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있어서는 한발 앞섰다는 점을 반영했다.

NTT도코모는 대부분의 시연을 WCDMA망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보여줘, 향후 WCDMA 단말기 및 서비스의 기술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NTT도코모는 특히 WCDMA단말기를 이용해 다양한 화상통화를 구현했고, 국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다양한 카메라폰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는 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제공하는 TV폰을 선보이는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반영했다.

국내 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 일간 이동통신 서비스가 컨버전스의 큰 흐름속에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NTT도코모 전시관을 통해 WCDMA 단말기와 서비스의 흐름과 발전방향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등이 전시관을 마련해 참여했지만 특별한 서비스 시연보다는 비즈니스 상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럼-한국 IT정책·산업전략 벤치마킹 대상 발돋움

이번 행사의 포럼에서는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로 상징되는 새로운 통신환경과 이에 따른 새로운 통신분야 국가정책 및 통신업체의 생존전략 방향에 세계 각국의 통신분야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스팸메일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이홍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이용경 KT 사장·김신배 SK텔레콤 사장·윤창번 하나로텔레콤 사장 등 한국 정부 및 통신업체의 스타급 인물들이 총출동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선도적인 통신정책 및 통신산업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IT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세계 각국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인식시키는 한편 IT정책 및 산업전략을 국제적인 IT분야 벤치마크 대상으로 확실히 발돋움시켰다.

진대제 장관은 첫날 개막식 토론인 '미래를 이끄는 아시아'를 통해 IT 839전략 등 IT 중심의 국가발전전략 추진 내용을 소개, 개발도상국 등 IT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진 중인 각국 정책담당자들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서삼영 한국전산원장도 '브로드밴드 구축'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한국을 IT강국으로 만든 IT정책추진사례를 설명하며, 향후 국가경쟁력은 IT가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경 KT 사장과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커넥팅 더 넥스트 빌리언'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는 국내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선도적인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각국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용경 KT 사장은 향후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의 관건은 광가입자망(FTTN)을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분야 토론주제에서는 VoIP 등 차세대 음성전달 매체, 유비쿼터스, 3세대 이동기술, 끊임없는 통화품질의 커뮤니케이션, 진화한 무선기술, 미래 컨버전스 네트워크 등으로 차세대 통신시장을 주도한 기술들에 대한 통신분야 관계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전자정부관' 외국관료에 인기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각국의 관계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특히 국력수준이 다양한 아시아지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실질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도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 아시아 2004 대회에 마련된 전자정부관이 방한중인 외국의 고위관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지역 국가의 관심이 커 이들 지역에서 온 장관급들은 대회장인 벅스코(BEXCO) 한쪽에 마련된 8개 부처, 60개 부스로 이뤄진 이곳을 빠짐없이 둘러봤다.

본 행사가 열린 7일에는 이란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부장관 일행이 방문했고, 개막식이 열린 6일에는 태국의 통신장관이 둘러봤다. 9일에는 부탄 정보통신부장관과 파키스탄 정보통신부 국장 및 국영통신회사 사장, 방글라데시 통신부장관이 다녀갔고, 8일에는 나이지리아 통신부장관이 이곳을 찾았다.

이밖에 인도의 국방청 대령과 주한 캐나다 대사관 직원도 이곳을 방문해 도우미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갔으며 대기업 CEO들도 방문리시를 이뤘다. 방문객들은 주로 전자정부 구축기간과 비용, 효율성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어떤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도시정보시스템과 교통카드 등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와 참여업체 등을 보내달라는 당부가 많아 전자정부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활력소 ... 전시품목은 기대이하

홍콩과 싱가포르 외에 처음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열려 주목받았던 '부산 ITU 텔레콤 아시아 2004'는 '32개국 장·차관 방한'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예상을 넘는 참관자가 전시장에 몰려 등록만을 위해 3, 40분씩 기다리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기업들과 외국정부대표단 및 글로벌 IT기업간에 해외진출이 모색되기도 했다. 행사기간중 공식발표된 수출계약은 미미하지만, 900여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KT, SK텔레콤, 하나로, 삼성, LG, 팬택 등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총 300여건 이상의 수출상담 및 계약,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결실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특히 KT는 이란의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ISP)인 아시아테크와 2005년까지 2,600만달러(한화 약 312억원) 규모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기로 했고, 알제리텔레콤과도 2006년까지 15만 회선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KT텔레콤이 베트남, 중국 등 7건을 상담하고, 삼성전자가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7건, LG전자가 베트남 등 7건, 팬택이 인도네시아 등 15건, 하나로통신이 말레이시아 등 7건, 디노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중소기업들은 총 60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는데, 특히 부산 지역 IT기업을 포함 55개 중소기업들은 300만달러 이상의 수출상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이 참가한 한국관에서는 계약이 2건, MOU 체결 1건 등 총 581건의 상담과 250만달러의 수출이 성사됐다.

따라서 해당기업들이 논의된 내용을 어떻게 팔로업하느냐에 따라, 침체된 국내 IT 경기를 회복시키는 단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개최지였던 부산도 만족하고 있다. 호텔 등 숙박업체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00% 가동율을 보여 지금까지 개최된 국제행사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부산 기업들 역시 해외마케팅 수준이 올라갔다고 만족해하고 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조직 위에 전시관을 공짜로 빌려주면서까지 유치해 개최 후 적자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국내 기업들의 전시 품목이 기대이하였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를 주제로 통신방송 융합, 자동차 통신융합, 차세대 핸드폰(DMB, WCDMA 등)을 선보였는데, 별로 새로울 게 없었다는 평이다. 심지어는 국내 전시회만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행사 초기에는 보안검색이나 기자실, 행사장 시설 등에 대한 조직위의 준비 미흡이 눈에 거슬리기도 했으며, 중국 기업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아 전체적인 참여 기업수와 관람객 수가 지난 2002년 홍콩대회 때에 비해 줄기도 했다.



ITU TELECOM ASIA 2004 이모저모

개막식, 중동귀빈 대거 참석

○...6일 개막된 'ITU 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국가 귀빈 10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무하마드 헤밀 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장관과 사이크 마하메드 압둘라 알사바 쿠웨이트 정보통신장관은 지난주 전용기편으로 도착했다"며 "이란의 경우 국회의원이 80여명이나 몰려왔다"고 들려줬다.



진대제 장관, 재치만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프레스 오찬에 참석, "한국에서 성공한 모바일 비즈니스"라며 컬러링(통화연결음)과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를 소개했다. 진 장관은 인사말에 앞서 "농담 하나 하겠다"며 자신의 휴대폰 벨소리인 닭울음소리와 새소리를 들려줬다.



그는 "한국에서 벨소리 다운로드와 컬러링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오~해피 데이'란 벨소리가 울리는 듯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많이 생긴다"고 말해 외국인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KT, 국제대회 분위기 조성 위해 다각 노력

○...KT는 국제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백스코 전시장 주위에서 제기차기, 캐리커처 그려주기, 퀴즈경진대회 등 다양한 옥외 이벤트를 열었다. 서유열 KT 솔루션사업단장은 "IT올림픽"이란 명칭에 걸맞게 전시장 안팎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며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소 차질을 빚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18호 태풍 '송다' 대회진행 차질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 대회는 IT 경기 침체로 저조한 참여와 함께 날씨가 악재로 작용했다. 개막초인 6~7일 부산지역이 18호 태풍 '송다'의 영향권에 들면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 특히 당초 개인 비행기를 이용한 방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어윈 제이콥스 퀘일 회장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기조연설 및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만남도 무산됐다. 또 7일 오전 진행된 인텔 기자 간담회에도 동시통역사가 비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인텔코리아 측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스타크래프트대회 'KT-KTF배 프리미어리그'도 개최가 무산될 뻔하다가 하루 연기된 8일부터 열리게 됐다.

휴대폰에 매료된 외국인 주문 빗발쳐 진담

○...300만화소 카메라폰, 위성DMB폰 등 국내업체들이 출품한 첨단 휴

대폰들에 매료된 외국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사도록 해달라고 주문이 빗발쳤다. 러시아 고객의 주문을 받은 LG전자측은 자막지원, 통신방식들이 달라 팔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여서 진담을 빼기도 했다.

전자정부관 외국 장관에 인기

○...정통부와 부산시, 강남구청, 농촌진흥청 등이 마련한 전자정부관이 각국 장·차관들에게 인기가 폭발했다. 특히 119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부산시 소방본부는 신고에서 출동까지 1분내로 완료되는 과정을 실제 시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동남아 장관들은 아예 시스템 구축업체들과 구매 상담까지 현장에서 벌이는 등 바이어 역할까지 했다.

중동 유일부스 '투라야' 관람객 눈길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투라야 부스에 관람객들의 호기심이 집중했다. 글씨체와 언어가 낯선 반면, 출품한 내용은 첨단 위성임대서비스와 관련 장비여서 눈길을 모았다. 연말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투라야는 KT·데이콤·차이나텔레콤 등 아시아 지역 통신사업자들의 마음잡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모바일 '싸이' 실현 외국바이어 발길

○...휴대폰을 통해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 즉석 사진을 보내는 SK텔레콤의 현장 시연에 외국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캐나다 바이어는 미니 홈페이지의 서비스 구성과 내용까지 일일이 문의하고 직접 시연해보느라 1시간 가까이 부스에 머물기도 했다.

게임리그 ITU관객유치 한몫

○...8일밤 개막한 KTF의 프리미어리그가 부산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첫날 행사에 1,000여명이 참석한 청소년들은 앞서 전시장까지 둘러봐 게임리그가 ITU 관객 유치에 한 몫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즉석 캐리커처 인기 폭발

○...세계의 IT 선진기술을 체험하는 부산ITU텔레콤 행사장 곳곳에서는 전시회 외에도 관람객들을 위한 즉석행사들이 열려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국관 앞에서는 참가업체에서 초청한 사람들이 나와 행사가 열리는 동안 관람객들에게 즉석에서 캐리커처를 그려 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A4 용지에 작품 1개를 완성하는 데 5분 정도 걸리는 데 사람들이 몰려 길게 줄이 이어졌다. 또 이날 오전 11시께 근처에서는 흰색 모자와 옷으로 치장하는 등 운문을 흰색으로 물들인 피어로 2명이 등장, 마케팅 흥내를 내면서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들은 사진 촬영에도 응해 행사장 열기를 높였다. 